

에이스 엄원상 선봉...광주FC, 전용구장 첫승 노린다

광주FC가 '에이스' 엄원상을 앞세워 전용구장 첫 승을 노린다.

광주가 6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울산 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2라운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수원삼성을 상대로 2021시즌 첫 경기를 치렀던 광주는 0-1 패배를 기록했다. 단 2개의 슈팅에 그치면서 공격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탄탄해진 중원과 수비에서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기-한희훈-이한도-여봉훈의 안정적인 수비라인을 바탕으로 '성난 황소' 이찬동, 주장 김원식이 중원을 압박하면서 무개를 잡았다. 플레이메이커 김중우도 팀에 녹아들고 있다.

무엇보다 '최후의 보루' 윤보상이 선방을 펼치면서 1년 만의 진정 복귀를 자축했다.

수원을 상대로 몸을 푼 광주는 이번엔 더 센 상대를 만난다.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이자 올 시즌에도 '우승 후보'로 꼽히는 울산이 광주의 안방을 찾는다.

울빛가람, 이동준, 이동경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앞세운 울산은 앞선 강원FC와의 1라운드에서 5-0 대승을 거뒀다. 울산과의 통산 전적도 1승 6무 11패로 광주가 열세다.

홈 개막전에서 버거운 상대를 만났지만 쉽게 물

우승 후보 울산과 6일 홈 개막전

탄탄해진 중원과 수비 바탕

엄원상의 발 빠른 역습 기대

'노란색 드레스 코드' 이벤트로

홈팬들과 함께 승리 기원

러날 수는 없다. 지난 시즌에도 광주는 울산을 상대로 끈질기 승부를 펼치며, 2무 1패를 기록했다. 광주의 2020시즌 첫 승점도 울산전 1-1 무승부를 통해 만들어졌다.

갑갑 바뀐 울산의 발목을 잡은 광주는 이후 3연승을 달리며 창단 첫 피니시A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었다.

이번 홈 개막전 선봉에는 에이스 엄원상이 선다. 엄원상은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빠른 스피드와 함께 폭발적인 돌파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

지난 시즌 울산과의 첫 경기에서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부상으로부터 돌아온 엄원상은 울산과의 4라운드 경기를 통해 2020시즌 첫 경기를 치렀고, 마수결이포도 터뜨렸다.

짜임새 있는 수비와 중원의 압박 속 엄원상이 빠른 역습으로 울산을 흔들려준다면 승산 있다.

올 시즌 안방에서 치르는 첫 경기, 전용구장 '첫승'이 달린 경기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중반 광주는 전용구장시대를 열었지만 새 안방에서 승리는 거두지 못했다.

광주는 팬들도 관중석에서 승리를 위해 함께 달릴 수 있도록 'DRESS CODE : yellow'를 주제로 이벤트를 펼친다.

드레스 코드는 그 행사에서 요구하는 복장을 뜻하며, 행사에 초대된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는 구단 메인 컬러에 맞춰 광주축구전용구장을 노랗게 물들이고자 한다.

광주는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입장하는 선착순 100명에게 쿠션형 무릎담요를 증정한다.

또 노란색 소품(머플러, 마스크, 의류 등 노란색의 모든 소품)을 활용한 직관 인증샷을 '카카오톡 광주FC'로 전송하면 추첨을 통해 차량용 방향제, 광주FC 마스크(스트랩 포함)를 선물할 예정이다.

광주는 이번엔 비대면 릴레이 시속 영상을 전광판에 송출함과 동시에 홈개막전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축포를 쏘고, 구역별 경품 추첨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홈개막전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에이스' 엄원상(왼쪽)이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2021시즌 홈 개막전 선봉에 서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라운드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황희찬 6개월 만에 시즌 2호골

라이프치히, 포칼 4강 진출 이끌어 이재성 활약 홀슈타인 킬도 4강에



황희찬이 4일 열린 독일 DFB 포칼 8강전에서 후반 43분 쐐기 골을 터트린 후 주먹을 불끈 쥐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의 황희찬(25)이 약 6개월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해 팀의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4강 진출에 앞장섰다.

황희찬은 4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와 2020-2021 DFB 포칼 8강전에서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43분 쐐기 골을 터트렸다.

라이프치히는 이 골에 힘입어 볼프스부르크를 2-0으로 꺾고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2018-2019 시즌 이후 2년 만에 4강에 올랐다.

후반 39분 교체 투입된 황희찬은 4분 만에 득점을 기록했다. 그의 시즌 2호 골이다.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황희찬은 지난해 9월 뉘른베르크(2부)와 포칼 1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올린 뒤로는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분데스리가 9경기와 포칼 1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 대부분 교체로 뛰며 침묵했던 그는 약 6개월 만에 골맛을 봤다.

전반 라이프치히는 황희찬을 벤치에 앉히고 전방에 유수프 포울센, 2선에 크리스토퍼 은쿤쿠, 다니 올모, 유스틴 클라우버트 등을 앞세워 공격에 나섰다.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다.

전반 23분에는 은쿤쿠의 파울로 볼프스부르크에 페널티 킥을 허용하며 선제골을 내줄 뻔했다. 하지만 바우트 베호르스트가 미끄러지면서 찬슛이 골대를 벗어났고 말았다.

위기를 넘긴 라이프치히는 전반 32분 클라우버트의 슈팅이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판정돼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0-0으로 전반을 마친 라이프치히는 후반 18분 리드를 잡았다.

알렉산데르 쇠를로트의 패스를 받은 포울센이 페널티 지역으로 쇠도해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 결승 골을 뽑아냈다.

후반 39분에는 황희찬이 은쿤쿠 대신 그라운드를 밟았고, 4분 뒤 쐐기 골을 터트렸다.

황희찬은 에밀 포르스베리의 슛을 상대 골키퍼가 쳐내자, 오른발로 재차 슈팅해 골대 안으로 차 넣었다.

이재성이 풀타임을 소화한 2부 분데스리가 홀슈타인 킬은 4부 리그 팀 로트-바이스 에센을 3-0으로 완파하고 4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재성은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90분을 뛰며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전반 26분 알렉산더 뮐링의 페널티킥 결승 골로 앞선 킬은 2분 뒤 아니 제라의 추가 골로 승기를 굳혔고, 후반 45분에는 니콜라스 하우프트만의 패스를 받은 요주아 메스가 한 골을 더해 3골 차 승리를 완성했다. /연합뉴스

조선대 배드민턴 전국대회 '우승 스매싱'

전국동계대학실업선수권 안동대 3-0 꺾고 단체전 정상에



많은 채 3-0 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동현 조선대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예선전부터 좋은 기량을 선보여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학교 배드민턴팀이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광주시체육회는 조선대 여자 배드민턴팀이 최근 경남 밀양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2021 전국동계대학실업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조선대는 단체전 4강에서 안동과학대를 상대로 4경기까지 하는 접전 끝에 전체스코어 3-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이어 단체전 마지막 경기에서 안동대를 만난 조선대는 1경기에 나선 유서연이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겨 기선을 잡았다.

또 2경기에 출전한 정혜진이 세트스코어 2-1로 승리해 승기를 잡은 뒤 복식으로 펼쳐지는 3경기에서도 안혜원·유서연 조가 2-1로 승리했다.

단체전 초반 3경기를 모두 이긴 조선대는 4경기 김다솜·정은영과 5경기 안혜원이 경기에서 나서서

여자농구 '4위의 반란'

삼성생명, 정규리그 1위 우리은행 꺾고 챔피언 진출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위 팀 용인 삼성생명이 1위 팀 아산 우리은행에 1패 뒤 2연승을 거두고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삼성생명은 3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3전 2승제) 3차전에서 우리은행을 64-47로 제압했다.

지난달 27일 1차전에서 69-74로 졌던 삼성생명은 1일 2차전에서 76-72 승리에 이어 3차전도 잡아 2년 연속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우리은행을

PO에서 2승 1패로 따돌리고 2년 만이자 통산 18번째 챔피언 진출을 확정했다.

삼성생명은 2018-2019시즌에도 정규리그 3위로 PO에 오른 뒤 당시 2위 팀이던 우리은행을 2승 1패로 잡고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바 있다.

이후 2019-2020시즌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규리그 도중 시즌이 조기 종료하면서 챔피언전이 열리지 않았다. 챔피언이 열린 해를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두 시즌 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특히 정규리그 4위 팀이 챔피언전에 오른 건 2001년 겨울리그의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삼성생명은 7일부터 5전 3승제로 열리는 챔피언전에서 정규리그 2위 팀 청주 KB와 격돌한다. KB는 3위 인천 신한은행을 2연승으로 제압하고 챔피언전에 선착했다. 1차전은 7일 오후 1시 45분부터 용인에서 열린다.

반면 2017-2018시즌 이후 3년 만이자 통산 14번째 챔피언 진출에 도전했던 우리은행은 또 한 번 삼성생명에 털리며 챔피언전 문턱에서 좌절했다.

삼성생명이 김단비의 3점 플레이로 경기를 시작, 2분 넘게 우리은행을 무득점으로 묶고 9-0으로 앞서 나가며 2차전의 기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미나리
- 2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통과 제리
- 3관 미션 파서블
- 4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 5관 미나리
- 6관 미션 파서블
- 9관 극장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7관 세세커플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소울
- 8관 세세커플 카오스 워킹, 통과 제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극작 상상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
 산책**